

傳統化粧文化에 나타난 연지(胭脂)의 변천에 관한 고찰

鄭容熙·李炫沃

영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A Study on the Change of Cheek-rouge in the Traditional Make-up Culture

Yong-Hee Jung and Hyun-Ok Le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Young Nam University

目次

Abstract	2. 고려시대
I. 서론	3. 조선시대
II.化粧의 정의	4. 개화기 이후
III. 연지의 유래와 의미	V. 결론 및 고찰
IV. 연지化粧의 변천	참고문헌
1. 삼국시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understand the traditional make-up in Korea, and investigate a method of making and using the cheek rouge, make-up trend.

This study was reviewed the change of cheek rouge from the Three State to the Civilization period.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cheek rouge make-up was the main aspect in Korea make-up and was a product of culture, society and area.

Therefore, this finding was helpful to understand the traditional make-up culture in Korea, and to express and inherite Korean beauty in the make-up.

I. 서론

인간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연출을 시도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방법중의 하나로化粧을 들 수 있다.

化粧은 복식의 한 요소로서 복식을 총정리 해 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복식과化粧에서 그 사람의 품위와 직업을 알 수 있을 정도로化粧은 인격의 척도가 된다. 따라서 의상 못지 않게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化粧의 기원에 대하여 몇 가지 가설을 검토하

여 보면, 화장은 아름답게 꾸미는 것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식욕·성욕과 아울러 화장의 욕구는 인간의 3대 본능으로써 태고적부터 인간은 신체의 아름다운 부분을 돋보이도록 하고 일부의 약점이나 추한 부분은 수정 또는 위장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그리고 신분, 계급, 종족, 남녀 성별을 구별하기 위한 치장이 미화의 수단으로 발전했다는 신분표시설¹⁾,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장 혹은 은폐시키기 위한 치장이 미화 수단으로 발전했다는 신체보호설²⁾, 또 신에게 경배(기도)하기 위하여 향나무의 가지를 사르고, 향나무의 즙으로 만든 향수나 향료를 미화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종교설³⁾ 등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가설을 종합해 볼 때 인류화장의 기원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중의 하나인 미적 욕구에서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화장의 기원은 인간생활의 시작과 함께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고대부터 화장품이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발된 것은 19세기 후반부터이며, 20세기에 와서 기입화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러한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 화장품 명칭에도 변화를 가져왔는데 우리나라 옛 화장품의 명칭을 살펴보면 미안수(화장수), 면약(크림에 해당), 백분(파우더), 연지(볼연지,립스틱), 미묵(눈썹묵), 머릿기름⁴⁾ 등으로 표현되었는데 이중 연지는 백분에 비금갈 만큼 대중화된 화장품으로써 현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전통화장에서 연지는 그 시대의 사회와 문화적 환경과 가치 체계를 고려함으로써 그에 반영된 정신적 기반과 미의식을 유추해 내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전통화장문화에 대한 선행연구가 있지만 연지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전통화장중 연지에 대한 유래와 의미, 시대적인 경향과, 제조법, 사용법 등을 살펴봄으로써 전통화장문화의 전반적 이해와 더불어 이에 반영된 정신적 기반과 미의식을 규명

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의 시대 범위는 삼국시대부터 개화기까지로 설정하였으며, 연구방법은 문헌조사를 위주로 하였다.

II. 화장의 정의

‘화장’이란 단어도 시대에 따라 변천되어 왔는데 먼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었던 ‘화장’의 개념에 해당되는 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지분(脂粉)이라는 말과 분대(粉黛)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것은 본래 연지(胭脂)와 백분(白粉), 백분(白粉)과 눈썹묵(黛)을 일컫는 말이지만 그 당시 화장품의 대종(大種)을 이루었으므로 화장품을 총칭하는 말로 사용되었으며, 화장의 의미를 대신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와 같은 말 외에도 꾸밈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였다. 즉, 담박하게 꾸민 것을 ‘담粧(淡粧)’, 예쁘게 꾸민 것을 ‘염粧(艷粧)’, 짙게 꾸민 것을 ‘농粧(濃粧)’이라 했으며, ‘야용(冶容)’이라는 말도 쓰였다. 어휘의 사용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담粧(淡粧) : 피부를 희고 깨끗하게 가다듬는 정도의 담박한 멋내기. 옷을 단정하게 차려 입고, 단아한 빗질에, 요즘 기초화장만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농粧(濃粧) : 담粧보다 짙은 상태의 멋내기. 색채화장을 한 경우와 비슷하다.

염粧(艷粧) : 짙은 상태의 색채화장이 되, 요염한 색채(色態)를 표현한 경우를 일컫는다.

응粧(凝粧) : 농粧과 유사하나, 더욱 또렷하게 꾸민 상태에서 신부의 화장이 이에 해당한다. 담粧, 농粧, 염粧이 평상시의 화장임에 반하여 응粧은 혼례 따위에만 하는 의례(儀禮) 차림이다. 신부의 얼굴치장 외에 장신구와 옷치장이 화려한

1, 2, 3) 전완길 등, 한국생활문화 100년, 장원, 1995, p. 19-20.

4) 全完吉, 한국화장문화사, 悅話堂, 1987, p. 16.

꾸밈일 때에는 응장성식(凝粧盛飾)이라고 표현해야 적절하다.

야용(冶容) : 억지로 아름답게 꾸민다는 분장(扮裝)의 의미를 내포한다. 본래의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더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아니라, 박색을 미인으로 치장한다든가, 노인을 젊은이처럼 몰라보게 치장하는 따위를 가리킨다. 옛날 사람들이 가운데 간혹 화장 행위를 비난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야용을 경멸한 것이다. 화장(化粧)을 우리 고유 어휘에 건준다면 야용이 이에 해당한다⁵⁾.

그런데, '화장(化粧). 화장품(化粧品)'은 일본인들의 조어(造語)이며 개화기 이후에 '신식화장품'이 수입되면서 사용된 합병(合併) 이후 보편화된 것으로 「새우리말큰사전」⁶⁾, 「조선말 큰사전」⁷⁾ 등에는 화장(化粧)을 단장(丹粧(단장))에서 찾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새우리말큰사전」과 「조선말 큰사전」에는 단장(丹粧)은 첫째 분, 연지를 발라 얼굴을 곱게 매만지는 것으로 화장(化粧)이라고도 하며, 둘째 모양을 내는 것이라고 하고 있어 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새국어 대사전」⁸⁾에는 화장(化粧)을 (1)분·연지 따위로 얼굴, 머리털을 곱게 매만짐. (2)옷 맵시를 매만지는 것으로 단장(丹粧)이라고도 한다. 라고 하여, 단장(丹粧)을 화장(化粧)에서 찾게 되어 있다. 즉, 화장은 얼굴 머리등을 화장품 재료를 발라 매만지는 것을 말하고 단장은 화장은 물론이고 옷맵시까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말하고 있다. 화장이란 말은 개화기 이후에 일반적으로 쓰였으며 그 이전에는 단장(丹粧)이라는 용어로 쓰여졌다.

Ⅲ. 연지의 유래와 의미

연지는 볼과 입술을 붉은 색조로 치장하는 화장품을 말하며, 이마에 둥그렇게 치례하는 것을 곤지라고 하는데 이것 역시 연지를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인의 조진중 삼홍(三紅)⁹⁾이라 하여 볼과 입술 및 손톱이 붉어야 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연지 바르는 풍습이 있었다 한다.

연지화장의 최초 기록은 기원전 1150년경 중국의 은(殷) 주왕(紂王)때라고 하므로 약 3천년의 역사를 지닌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부터 연지를 치례에 이용하였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기원후 5~6세기경에 축조되었으리라는 수산리 소재 고구려벽화 인물상(도 3)에 보면 여인들의 볼과 입술이 발강게 발라져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도 1천5백~2천년전쯤부터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연지화장의 유래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한데 샤머니즘 문화권에서는 주색축귀(朱色逐鬼)의 속신(俗信)을 신봉한바, 주색금기(朱色禁忌)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 가장 보편화 되어 있다.

한국의 풍속사 I.에서 보면

「귀신을 물리는 색깔로는 단연 붉은빛인데 아마도 이는 음양오행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오행에서 붉은색은 방위로 남방에 해당되며 남방의 적색은 양의 빛이고 음귀를 물리치는 색으로 여겼다.」¹⁰⁾

「혼기(婚旗) 다음에 뒤따르는 사람은 붉은 옷을 입고 기러기를 안고 가는 기러기아범(雁夫)인데 붉은옷을 입는 것은 붉은색을 싫어하는 귀신을 물리려는 뜻이다.」¹¹⁾

「동지에는 붉은팥으로 팥죽을 쑤어서 집안의 중요한 곳에 떠놓고 뿌리면 잡귀 귀신이 물러간다고 믿는다.」¹²⁾

5) 전원길, 한국화장문화사, p. 14-18.

6) 신기철, 「새우리말큰사전」, 삼성출판사, 1978, p. 778.

7) 조신어학회, 「조선말큰사전(2)」, 을유문화사, 1949, p. 721.

8) 국어국문학회, 「새국어대사전」, 송강출판사, 1969, p. 906.

9) 李圭燾, 이규태코너, 1985, 조선일보사 p. 314.

10) 김용덕, 한국의풍속사 I, 1994, 밀알, p. 50.

11) 김용덕, 앞의책, p. 251.

12) 김용덕, 앞의책, p. 49.

위의 내용에서 볼 때 붉은색, 붉은옷, 붉은팔 등에서 축귀, 축사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볼 때 양 볼의 붉은색 연지도 주색금기 사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석명(釋名)」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있는데 단(丹)으로 얼굴에 바르는 것을 적(的)이라 하는데 이 적이란 것은 얼굴을 환하게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본래 천자(天子)와 제후(諸侯)의 못 첩들이 차례로 입금을 모시는데 월사(月事)가 있는 자는 모시지 못하게 된다. 그 일을 입으로 말하기가 곤란한 까닭에 이 연지를 찍어서 환하게 표시를 하는데 「여사(女史):후궁(后宫)에 출사(出仕)하여 기록, 문서 등을 맡은 여관(女官)」 그것을 보면 그 이름을 모록(茅錄)에 기록하지 않는다.¹³⁾고 한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면 연지는 월사(月事)의 표시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며, 중국 오나라 손화(孫和)라는 사람의 일화를 보면,

“吳主의 손화의 부인이 이마를 다쳐 피가 분분하니, 의사를 뵈었다. 의사 이르기를 흰 산달의 기름에 옥과 琥珀을 섞어 만들어 바르라 하니, 과연 다친 자욱이 없어졌으니 호박이 너무 들어가 나온 뒤에도 붉은 것이 고운 것을 도와 은총이 더 하니 모든 미인이 다투어 흉내내어 단사(丹砂)를 찍고, 號를 丹脂라 하더라¹⁴⁾.”

라는 설도 있고 원시시대의 남자들이 날짐승을 잡은 용맹을 과시하기 위하여 입가에 묻은 피를 닦지 않고 다닌데서 유래하였다는 설 등¹⁾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익(李翼)의 성호사설과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¹⁵⁾에서는 흉노(匈奴)의 고유습속이 중국에 전래되어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다는 설도 있고 최남선(崔南善)의

고사통(故事通)에서는 “신부가 귀걸이를 걸고 뺨에 연지를 찍는 것도 다 몽고 부녀의 통례이다.”¹⁶⁾ 라는 기록으로 몽고족의 습속이 고려시대에 전래되었다는 설도 있다.

연지의 전파경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서남아시아에서 생겨 중국의 서북지방과 몽골고원지대를 거쳐 고구려에 들어온 후 오랜세월을 지나는 동안 여러 가지 새로운 뜻이 덧붙여진 것¹⁷⁾ 이라는 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唐)나라 장비(張泌)의 「妝樓記」에 보면 「홍노가 그 아내의 이름을 연지(閼氏:홍노왕 신후 황후의호, 胭脂와 同音)라고 한 까닭은 연지와 연지(燕支)가 음이 같으니 그 아내를 연지처럼 사랑한다¹⁸⁾라는 말에서 나왔다고도 하고,

「성호사설」의 연지조(胭脂條)에 “홍노지방에는 연지(焉支)라는 산이 있는데 산 전체가 연지처럼 붉은 빛깔로 되어 있다. 이도 역시 부인의 얼굴에 바른만한 까닭에 산 이름을 ‘연지’라 했다.”¹⁹⁾고 되어 있고,

「대한화사전」에 보면 “胭脂는 화장용의 홍색의 안료로 입술에 바르는 것 이라고 되어 있으며, 燕支, 燕脂는 같은 뜻이다”²⁰⁾라고 했다.

이처럼 명칭이 다양한 연지의 재료는 홍화(紅藍花)와 주사(朱砂)였는데 신라에서는 홍화로, 고구려에서는 주사로 만들었는데 주사는 진사(辰砂)라고도 하며 빨간 빛깔을 띤다. 성분은 황화수은(HgS)이고 석회암에서 나며 가장 좋은 주사는 표면이 거울처럼 반짝이며 경면사(面砂)이다.

주사는 수은의 주요한 원료이며 안료나 약에도 쓰이고 이것으로 만든 연지를 단지(丹脂)라고도²¹⁾ 부르는데 색깔이 선명한 장점이 있으나 단기간

13) 趙孝順, 韓國服飾風俗史 研究, 一支社, 1989, p. 391.

14) 金英淑, 孫敬子, 共編, 한국복식사자료선집.

15)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민족문화추진위원회 “여자들이 입술에 주홍색을 바르는 법은 입술의 위·아래를 뽕뽕 바르지 않고 입술끝부분만 바르므로 바라보면 마치 구슬을 …”.

16) 최남선, 故事通, 第二十八章, 삼중당, 1943, p. 85.

17) 최표, 고금주(古今注)에는 “연지(燕支)의 잎은 삼주와 같고 꽃은 창포와 비슷한데 서쪽지방에서 생산된다”고 한다.

18) 중국오천년 여성상식사, 周迅·高春明, 경도서원, 1993, p. 119.

19) 조효순, 한국복식풍속사 연구, p. 390.

20) 諸櫛叢次, 대한화사전, 대수관서정, 1968, No.30018.

21) 송용성, 전공개론, 전통문화사, 1997.



<그림 1> 홍화(꽃잎) (국립민속박물관「한국복식2천년」p. 262)

사용할 경우 수은의 단독(丹毒)이 우려되었다.

먼저 홍화(그림 1)로 연지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면 홍화는 중국에서 전래된 1년생 화초로써 7월경 개화한 꽃잎이 붉어지자마자 새벽에 따서 절구에 찧고 베로 짜서 그늘진 곳에서 서서히 말려 가루를 만들어 물을 뿌리고 다시 말리는 과정을 반복하여 체로친 후 환약처럼 만들어 말려서 보관했다가 조금씩 개어 발랐다. 이때 이러한 과정을 되풀이 할수록 상품(上品)이 되며 이에 따라 '두벌흙', '세벌흙' 등 질적 차이가 있었다.

요즘에도 홍화의 색소는 연지(주로 립스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 주사로 연지를 만들던 방법은 날계란 두 개를 꼭지 따고 구멍을 내어 편자를 모두 뺀후 노른자 두 개를 한 껍데기에 넣고 휘저어 융합이 되면 먼저 주사(朱砂) 두돈 명반 두돈을 몽글게 갈아 사향을 조금 넣어 완전히 섞은후 그것을 계란 껍데기 속에 넣고 다시 10여번 저어 계란 껍데기를 절반으로 잘라 약이 들어 있는 계란위를 덮고 솜으로 단단히 싸서 생초 주머니에 넣어 제즙(齊汁) 앓힌 솔안에 공중 매달고 반나

절을 끓이다가 꺼내서 식힌 다음 빈 껍데기를 버리고 다시 뺏으면 새빨강계 되어 그것으로 연지 대신 부인들 뺏 위에다 바르는데 피부에 잘 받고 보기에다 밝고 윤이 있어 아주 좋았다.

이렇게 만들어진 연지는 양볼에 둥그렇게 발랐으며²²⁾ 중국 당나라 18대 회종(僖宗), 19대 소종(昭宗)에 이르러 입술에도 바르기 시작했고 당말(唐末) 에는 이 풍속이 대단히 발달하였는데 빙허각 이씨의 「규합총서」²³⁾에 보면 입술연지 찍는 이름(點脣名)을 소개하였는데 그 명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석류교(石榴嬌), 대홍춘(大紅春), 눈오향(嫩吳香), 반변교(半邊嬌), 만금홍(萬金紅), 성단심(聖檀心), 노주아(露珠兒), 내가원(內家圓), 천궁교(天宮巧), 낙아은담(洛兒殷淡), 홍심(紅心), 성성훈(猩猩鞞), 소주몽격상(小珠龍格雙), 당미화로(唐媚花奴)등 열네가지이며, 그 모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러한 당의 입술연지 풍속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통일신라시대이며 고려에 이르러 잠시 위축되는 듯 하더니 조선시대에 다시 부활하였다.

또한 연지는 거칠어진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데도 크게 작용하였는데 성호사설의 「연지조에」 “연지(燕支)란 연지(胭脂)인데 기름으로써 부인의 얼굴을 아름답게 만드는 까닭이다.”²⁴⁾라고 한 것으로 추은 지방의 여성일수록 추위로부터 피부가 거칠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이 발랐을 것이다.

조선시대의 여성들은 연지를 양볼과 입술외에 혼례때 신부의 이마에 찍기도 했는데 역시 규합총서의 「매화장(梅花妝)」²⁵⁾에 보면 「송 수양공주가 함장전 난간에 누웠다가 매화가 날라 이마 위에 떨어졌는데, 마침내 이마에 단사(丹砂)를 찍는 단장(丹妝)을 만들고 이름지어 매화장이라 하니 이로부터 곧지 찍는법이 생겼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곧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연지를 바르는 목적은, 뺏에 혈색을 주어 여성스

22) 번흔(繁欵), 미수부(弭愁賦).

23) 憑虛閣, 李氏, 閨閣叢書, 경량원, 1975, p. 236.

24) 조효순, 한국복식풍속사 연구, p. 236.

25) 빙허각이씨, 규합총서, p. 236.

러움과 화사함을 보여주고, 젊고 발달한 건강미를 표현하기 위해서인데 한국인의 고정관념으로는 가장 젊고 건강한 연령은 15~16세이며 이 무렵의 여성은 입술이 앵두빛이고 뺨은 도화빛이라고 한다. 따라서 젊음과 건강이 절정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입술과, 볼, 이마에 붉은 연지를 발랐다. 연지를 바르지 못하는 형편인 사람은 아래 위 입술을 지그시 깨물어서라도(싹뺨이 확장되어 붉은색이 됨) 붉은 입술을 만들었는데, 입술색이 허연 사람은 병약하고 자줏빛이면 음탕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²⁶⁾. 그리고 입술과 볼을 치장한 연지는 홍화(紅花:잇꽃)로 만들었다.

IV. 연지(胭脂)화장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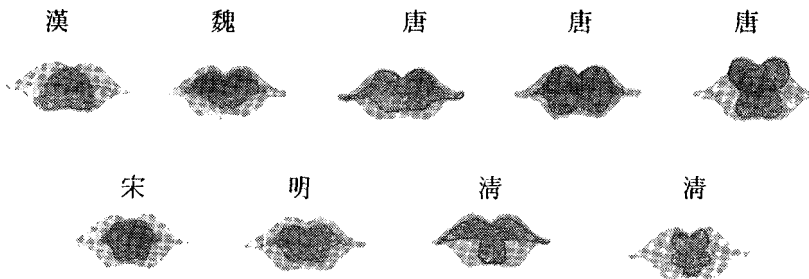
인간이 농경(農耕)을 터득함에 따라 공동부락제가 형성되고 있었다.

그런데 고대인들의 집단가무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종의 주술적(巫術的)의식이었으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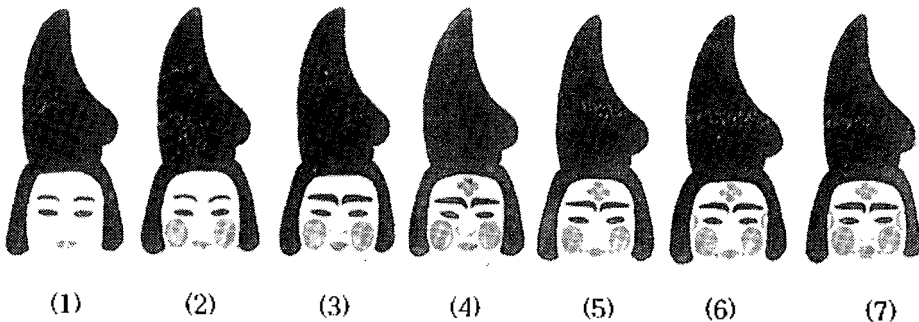
화장의 기원을 종교에 두는 경우도 흔히 있다. 이렇게 시작된 화장은 의식이 한창 다양해지고 또 그것이 단순한 주술적 행사라기보다 하나의 민속 제전 내지는 사교행사로 변화됨에 따라 보다 개인적인 성격으로 발전하고 여성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가의 체제를 완전히 갖춘 삼국시대에 이르러서는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중국의 발달된 화장 풍속이 가세되어 본격적인 화장 문화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중국은 고대로부터 화장풍속이 짙고 사치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인지 다양한 화장법이 있었고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져왔던 것으로 아래의 자료그림(그림 2)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서 보면 시대가 변화해 감에 따라 입술연지 그리는 양식이 달라져갔는데 현대화장에서 보듯 시대의 유행이나 계절의 유행에 따라 입술연지 그리는 방법과 색상이 변화해 가는 것을 볼 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그림 2> 중국 역대 입술연지 모양(주신·고춘명「중국오천년여성장식사」p. 140)



<그림 3> 唐代 여성의 화장순서(주신·고춘명「중국오천년여성장식사」p. 141)

26) 전완길 등, 한국생활문화100년, p. 30.

자료그림(그림 3)을 보면·중국의 당대 여성의 화장 순서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화장법에는 순서가 있는 점을 볼 때 20C 우리나라에서의 화장순서는 중국과는 다르지만 서양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은 중국이라고도 볼 수 있다.

화장의 순서를 보면

- (1)연분(鉛粉)을 바른다.
- (2)연지(胭脂)를 바른다.
- (3)눈썹을 그린다.
- (4)곤지를 붙인다.
- (5)입가에 애교 점을 찍는다.
- (6)눈 옆을 붉게 칠한다.
- (7)입술 연지를 바른다.

우리나라의 화장의 역사를 시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삼국시대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화장품이 만들어졌으므로 고구려는 삼국 중 중국과 가장 인접해 있었던 만큼 중국과의 교류가 잦아 신라나 백제보다 훨씬 화장문화를 빨리 받아들일 수 있었다.

중국의 화장역사는 벌써 태고 때부터 백분(白粉)을 얼굴에 하얗게 바르는 풍속이 있었고, 「묵자(墨子)」에는 여름에 우왕(禹王)이 분(粉)을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대개 기원전 4000년경으로 추정된다.

또한 은(殷)의 주왕대(紂王代:기원전 1122년경)에 연석(鉛錫)을 태워 총비(寵妃)가 화장을 했다고 한다. 이밖에 진황제(秦皇帝)때의 궁녀들은 연지를 바르고 눈썹을 그리는 홍장취미(紅粧翠眉)의 화장법을 썼다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진시황(秦始皇)때(기원전 221~202)에 벌써 연지에서 눈썹화장에 이르기까지의 화장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에서 일찍부터 유행하였던 연지는 우리나라에서 이웃나라 일본에 전파할 정도로 풍속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의 화장역사를 담은 구하사(久下司)의 「화장(化粧)」에

“연지가 일본에 들어온 것은 추고천황(推古天皇) 18년(610) 9월로, 고구려의 중 담정이 그 종자를 가지고 왔다.”²⁷⁾고 한 기록에서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

고구려에서 연지를 이용한 화장법이 일반화 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삼국사기」에 무녀와 악공이 이마에 연지를 동그랗게 그렸다고 전하고 있는 고구려인들이 연지를 입술과 뺨 이외에 이마에도 발랐으며, 연지화장이 직업을 구별짓는 수단이었음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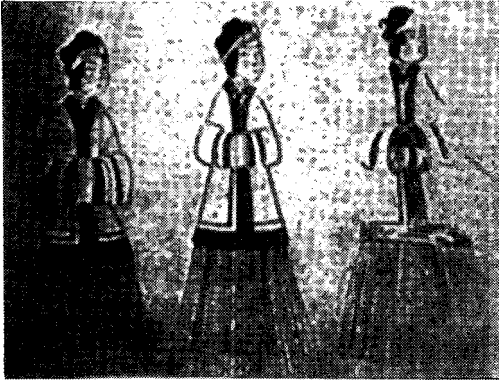
서기 5~6세기경에 축조되었으리라 추정되는 고구려 수산리 고분벽화(修山里古墳壁畫) 서벽(西壁)(그림 4)의 귀부인(貴婦人)상의 뺨과 입술이 연지로 단장되어 있으며, 쌍영총주실부벽화(雙楹塚主室北壁畫)(그림 5)의 시녀와 동벽(東壁)의 두 여인(그림 6) 등도 얼굴이 연지로 화장되어 있다.

그런데 수산리 고분벽화의 주인공은 귀부인이며, 쌍영총벽화의 주인공은 女官(여관) 혹은 시녀로 보임에도 연지화장을 한 것을 보면 당시 상, 하류 여인들이 신분에 관계없이 화장을 했었다고 추측된다. 또한 고구려인의 연지는 광물성인 주사(朱砂)로 만들었는데, 이들의 연지는 고품질이었으리라 추측된다. 왜냐하면 고구려의 연단술이



<그림 4> 수산리 고분벽화 서벽 귀부인(부분)
(출처: 한국미술전집.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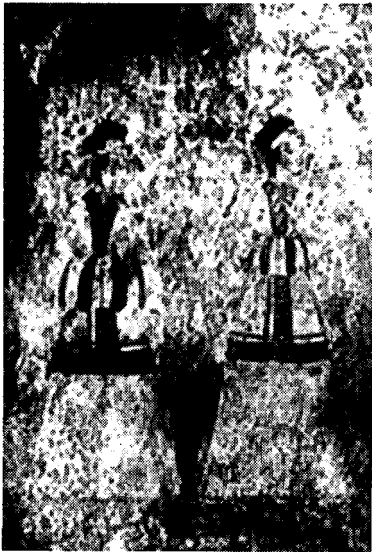
27) 久下司, 化粧, 日本法政大學出版局, 1970, p. 245.



<그림 5> 쌍영총연도동벽 인물도(부분)
(출처: 한국미술전집, 4)



<그림 7> 桃花妝의 女性(宋代)
(중국오천년여성장식사, p. 123)



<그림 6> 쌍영총연도동벽 두 여인(부분)
(출처: 한국미술전집, 4)

중국인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백제와 신라의 화장(化粧)풍속은 중국문헌인

「수서(隋書)」에 백제여인들의 화장풍속을 “부인은 분대(粉黛)하지 않고 머리를 번발(辮髮)하여 뒤에 늘어뜨린다.”²⁸⁾고 했으며, 「신당서」에는 신라 부녀의 화장풍속을 “분대하지 않고 미발(美髮)을 머리에 두르고 주채(珠綵)로서 장식하였다.”²⁹⁾고 했다. 여기서 분대(粉黛)란 얼굴에 바르는 분과 눈썹 그리는 비물을 뜻하는 것으로 신라와 백제는 고구려만큼 화장풍속이 일반화되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이 두 문헌이 중국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중국의 길은 화장(그림 7,8)에 비해 백제나 신라의 화장이 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현했을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인 문무왕(文武王) 6년(666)에 “부녀의 모든 복장을 당(唐)의 것과 동일하게 하라”³⁰⁾는 왕명이 내린 이후에 화려해졌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중국과 신라의 문물교류가 빈번해졌음을

28) 수서, 卷八十一, 列傳, 第四十六.

29) 신당서, 卷二十, 列傳, 第一四五.

30) 조선사학회, 三國史記, 近澤商店印刷部, 1941, 卷六, 新羅本紀, 第六, 文武王條, p. 68.



<그림 8> 입술연지를 바른 여성의 입술형(唐代)
(중국오천년여성장식사, p. 140)

의미하는데 당시 중국 여인들이 짙은 색조의 화장을 하고 있었으므로 의복과 아울러 화장도 변화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통일이후 정국이 안정되고 문물이 융성해져 국민생활이 윤택해졌으므로 그 영향이 화장에도 미쳐 다소 사치해졌을 것이다.

신라에서는 백분(白粉)의 사용과 제조기술이 상당한 수준이었다. 일본의 한 고문헌에 의하면 신라의 한 승려가 서기 692년에 일본에서 연분(鉛粉)을 만들어 상을 받았다³¹⁾는 기록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전에 이미 연분의 제조와 사용이 보편화 되었을 것이다. 연분의 제조는 화장품의 발달사상 획기적인 대발견으로 평가된다. 또한 백분에 붉은색을 염색한 색분(色粉)을 만들어 쓰기도 했는데 색분의 색소는 “백합꽃의 붉은 꽃술가루를 모은 것인데, 이것을 누에고치집에 묻혀 불에 발랐다”³²⁾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에서는 고구려시대부터 내려오던 연지와 색분이 함께 불연지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

다.

현재 출토되고 있는 신라의 화려한 장신구들이 대부분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지고 사용된 것들이므로 신라인의 치장은 매우 화려하고 의상·장신구·화장의 삼위일체를 이루는 특징이 있다.

2. 고려시대

통일신라의 뒤를 이은 고려는 신라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여 발전시켰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신라의 정치제도와 문화전통을 계승하는 정책을 시행하였고, 국교도 계속 불교로 받아들임으로써 화장문화 또한 전대(前代)의 발달된 문화가 그대로 이어졌다.

국초(國初)부터 중국의 기녀(妓女)제도를 본받아 교방(敎坊)을 두어 기생을 훈련시키고 제도화함으로써 한층 화려한 화장문화를 이루었다.

재가승(在家僧)의 출가법팔계제(出家法八戒齋)중에 ‘도식향만(塗飾香鬢)’ ‘부저화영락(不著華璉珞)’ ‘불향도신(不香塗身)’ ‘부저향훈의(不著香薰衣)’ 항목에 의하면, 일부계층에 한정된 풍속이긴 하지만 신체와 머리카락, 옷에 향료를 뿌리거나 발랐으며, 갖가지 보석 장신구를 빼용하고 여러 가지 화장품을 겹겹이 진하게 바른 사람은 사찰 출입하는 것을 금지시켰는데 이는 그 당시 일부 고려인의 화장이 꽤 사치스러웠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 반면, 서금의 「고려도경(高麗圖經)」에 나타난 고려 귀부인의 화장을 살펴보면 “부인의 화장은 향유 바르기를 좋아하지 않고, 분은 바르되 연지를 칠하지 아니하고, 눈썹은 넓고...”³³⁾라고 기록하는 바 이는 화려하되 은은하고 우아한 멋내기를 선호하는 계층도 적지 않았음을 말해 주며, 연지 바르는 풍속이 퇴색되어 감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출가법팔계제에 나타난 화장의 금제 조치와 서금의 고려 여인에 대한 화장 경향을 살펴볼 때 고려여인들은 신분과 개성에 따라 치장이 다른 것으로 기생의 분대 화장과 여염집 부인들의 얼은 화장으로 이원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31) 진완길, 한국화장문화사, p. 21.

32) 全完吉, 화장풍속사, 月刊藥局, 1982, 9, p. 164.

33) 徐兢, 高麗圖經, 卷二十, 1977, 민족문화추진위원회, p. 125.

3. 조선시대

조선시대는 유교의 영향으로 미의식도 내면의 아름다움과 외면의 아름다움을 동일시하며, 부덕(婦德)이 강조되었으며 유학적 도덕관념과 남성 위주의 사회구조 속에서 당시 남성들은 부인들에게 점잖고 운치있는 용모를 중용하였고, 여성들은 그것을 여성미의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표면적인 얼굴화장이 위축되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화장문화 발달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화장문화는 여염집 부녀자들보다는 기녀나 궁녀와 같은 특수직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결혼·외출의 의식행위로 개념이 바뀌어갔다. 즉, 여염집 여인의 넓고 은은한 화장과 직업여성(기생) 위주의 짙고 화려한 화장으로 이원화되었다(그림 9,10³⁴⁾~11,12³⁵⁾)

그러한 이유로 여염집 규수들은 짙게 한 화장으로 기녀로 오인 받는 것을 우려해 넓고 은은한 화장 즉, 얼굴에 눈썹을 그리고 분을 바르고 연지를 그리되 본래의 생김새를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름답게 가꾸도록 하였으며, 화장한 모습이 화장하기 전보다 확연하게 달라 보이면 아용



<그림 9> 하연 부인상



<그림 10> 미인도
(혜원 신윤복)



<그림 11> 기녀도
(혜원 신윤복)

(治容)³⁶⁾이라 하여 경멸하였다.

이익의 성호사설의 내용에 따르면,

“노는 여자가 꾸미기를 좋아하며 분바르고 연지 짙고 입술에 붉은 칠하고 눈썹을 그리기도 해

34) <그림 9,10>전완길, 한국화장문화사, p. 58

35) <그림 11,12>조효순, 한국복식풍속사 연구, p. 246

36) 李瀾, 星湖僿說,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77, P.63



<그림 12> 기녀도
(윤두서)

서 얼굴을 곱게 단장하고 몸매를 날씬하게 한 다음 웃음을 예쁘게 웃고 말도 애교있게 하면 능히 嫵母(모모)³⁷⁾를 변해 西施(서시)³⁸⁾를 만들 수도 있고 못난 모습을 바꿔서 잘 생긴 것처럼 만들 수도 있는 까닭에 冶(야)라는 것으로 일컫게 되었다.”

또한 그 당시 부녀자들은 색조화장 보다 기초 화장에 주력함으로써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화장을 추구하였으므로 그 어느 시대보다 부드럽고 세련된 화장으로 변모하였다.

그리하여 고려시대 이전부터 전해온 짙은 화장이나 연지와 곤지는 결혼식 또는 강강수월래 같은 여인들만의 특수한 놀이에서나 인정되었다.

4. 개화기 이후

신식 화장법이란 재래화장법에 비하여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입술연지의 색깔이 진해지고 향수의 향내와 비누의 향내가 강렬해진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진한 신식화장법이 신여성에게서 기생 및 접대부들에게 먼저 유행되었으나, 일부 신여성들의 자유연애에 예찬으로 빚어진 비난 때문에 여염집 여자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직업여성과 여염집 여자의 차례 구분이 더욱 심화되었다.

따라서 여염집 여인들의 화장색조는 종전보다 옅어졌는데 화장법을 살펴보면, 한창 짙고 건강할 무렵에는 뺨과 입술이 저절로 붉다고 생각하여 연지바르고, 얼굴이 희어야 귀티 있다고 여겨 분 세수하고 백분을 발랐으며, 눈썹모양에 따라 윤명이 좌우된다 하여 눈썹을 가다듬었고 머리카락은 검고 윤기 있어야 건강한 미인이라 하여 버릿기름을 반지르하게 발랐었는데, 바람둥이 혹은 화냥년이라고 지탄받은 신여성들과 구별하기 위해서는 볼과 입술의 연지가 흐리고 분바른 티가 없어야 했으므로 전통적인 농장(濃粧)의 소멸을 초래하였다³⁹⁾.

1945년의 8.15 광복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화장 풍산업은 전환기를 맞게 되고 화장법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이성보다는 감성을 중요시 여기고 패션성을 요구하고 있다. 즉, 화장과 의상등 모든 미적인 것이 하나의 토달패션으로 이루어지면서 천편일률적인 것이 아닌 개개인의 개성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개성적인 화장법으로 바뀌었다.

연지의 용어도 현대화장에 와서는 입술연지는 립스틱 또는 루즈 라고 하고 뺨에 칠하는 연지인 경우에는 볼연지 또는 볼터치(Cheek Make-Up) 라고 한다.

V. 결론 및 고찰

이상과 같이 전통혼례화장에 사용되고 있는 연지의 유래와 의미, 제조법과 사용법 등을 살펴보았다.

연지화장의 최초 기원은 중국이었으나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삼국시대로서 고구려 수산리 벽화의 귀부인상과 쌍영총 고분벽화의 여인상에 연지화장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고 백제와 신라에도 중국문헌인 「수서」와 「신당서」에 백제여인과

37) 모모:옛날 三皇의 하나인 皇帝 제4妃의 이름, 아주 못생긴 여자였으나 현덕이 있었다 함.

38) 서시:춘추시대 오왕(吳王) 부차(夫差)의 애비(愛妃), 예쁜 여자의 대명사.

39) 전완길, 한국화장문화사, P.71

신라부녀들의 화장에 대해 언급했고 통일신라시대에는 연분의 제조기술 발달과 더불어 연지의 화장품이 대중화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고려시대에는 신라의 정치제도와 문화전통을 그대로 계승함으로써 화장문화는 화려해졌다. 하지만 기생화장과 여염집 여인들의 화장을 구별하기 위해 여염집여인들의 화장은 얼은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했고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유교문화로 인해 연지는 점점 흔해나 강강수월래 같은 공식 행사에만 사용되게 되었다.

신석화장에서 현대화장으로 넘어오면서 화장은 개성과 미의 표현으로 변화해왔으며 연지는 전통화장에서와 같이 입술연지와 붙연지로 사용되며 그 사용법에 차이가 생겼다.

연지화장의 역사가 이러하였듯이 그 유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많은데 본고(本稿)에서는 지금까지의 화장의 역사나 연지에 나타나 있는 의미를 여러 문헌에서 살펴보았을 때 주술신앙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샤머니즘문화권에서 주술신앙을 신봉하였는바 경조사가 생겼을 때 귀신을 쫓는다는 주색축귀사상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또한, 연지화장은 젊음의 표상이며, 재혼시에는 연지화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신부의 연지·곤지는 솜치녀임을 과시하는 수단이라고도 생각된다.

연지화장 풍습이 중국에서 전래된 것이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중국의 그것과 동일하지 않게 모양을 바꾸었다. 즉,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지화장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동그랗게 모양을 통일시켜 전통양식을 만들어 왔다.

우리나라 전통 화장문화에서는 연지는 뺨에 혈색을 주어 더욱 아름답게 보이게 하고, 젊고 발랄한 건강미를 표현하였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얼굴 전체의 윤곽수정이라는 목적이 첨가되어 현대화장문화에서 연지화장의 존재방식을 구축해 나가는데 구심점이 될 것이라 본다.

이상의 고찰 분석결과는 연지화장이 화장의 중추적인 요소로써 시대상과 사회·문화적 산물이라는 특성을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전통 화장문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해함으로써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계승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참고문헌

1. 국어국문학회, 새국어대사전, 송강출판사, 1969.
2. 김영자, 분장의이해, 열두출판사, 1995.
3. 김용덕, 한국의풍속사I, 밀알, 1994.
4. 김희숙·이은임, 메이컵과패션, 수문사, 1996.
5. 박성실·이수용역, 중국복식사, 경춘사, 1992.
6. 憑虛閣 李氏, 閩閩叢書, 정랑원, 1975.
7. 徐統, 高麗圖經, 민족문화추진회, 1978.
8. 송응성, 천공개물, 전통문화사, 1997.
9. 신기철, 새우리말큰사전, 삼성출판사, 1978.
10. 李圭景, 五洲衍文長酸稿, 민족문화추진회, 1981.
11. 李瀾, 星湖僿說, 민족문화추진위원회역, 1976.
12. 全完吉, 한국화장문화사, 열화당, 1987.
13. 전완길 등, 한국생활문화 100선, 장원, 1995.
14. 趙孝順, 한국복식풍속사연구, 일지사, 1989.
15. 諸橋轍次, 대한화사전, 대수관서점, 1968.
16. 조선사학회, 삼국사기, 近澤商店印刷部, 1941.
17. 조선어학회, 조선말큰사전(2), 을유문화사, 1949.
18. 周迅十高春明, 중국오천년 여성장식사, 경도서원, 1993.
19. 崔南善, 故事通, 경성 삼중당, 1943.
20. 최윤식, 민족적인 삶의 의미, 한울, 1993.
21. 한국미술전집.4, 서울 동화출판공사, 1974.
22. 한국복식2천년, 국립민속박물관, 신유, 1996.
23. 송민정, 우리나라 傳統 化粧文化에 關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1.
24. 유선아, 화장품 광고에 나타난 의상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1995.